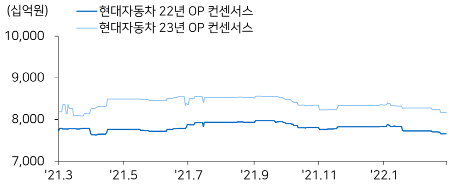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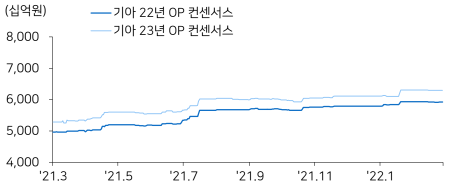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2. 3. 7 (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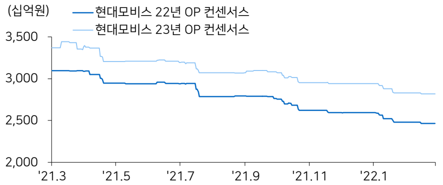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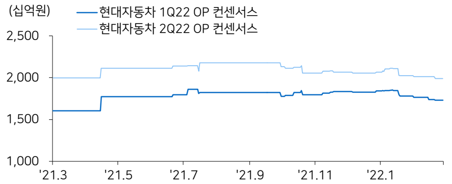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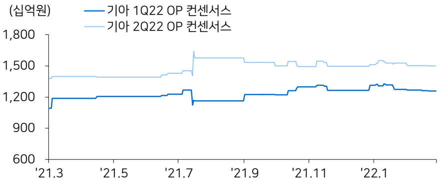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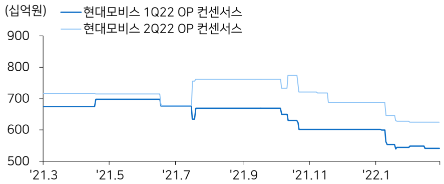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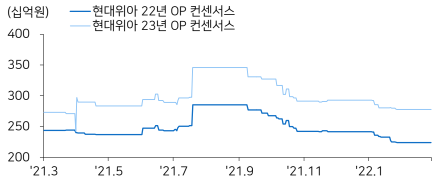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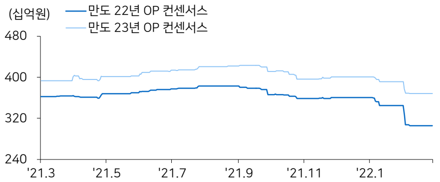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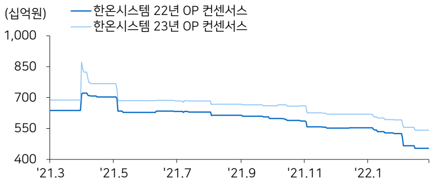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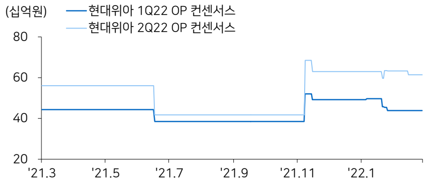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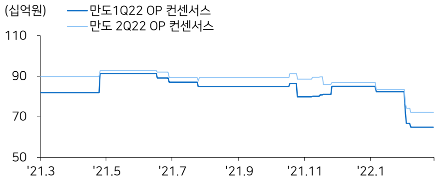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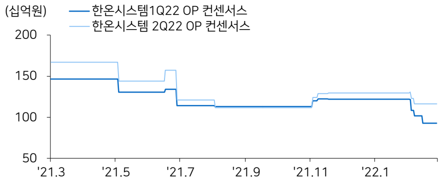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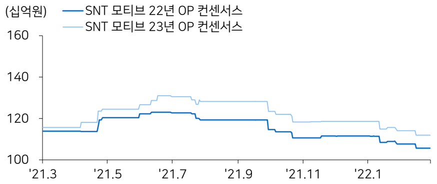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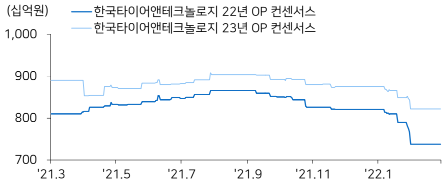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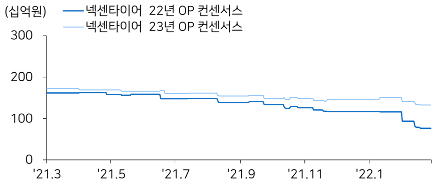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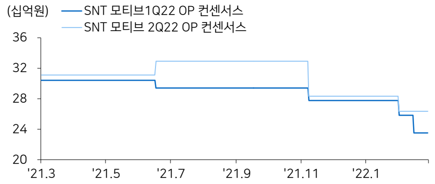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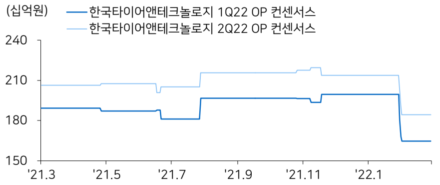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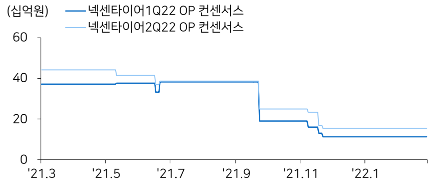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우크라 네온 공장 스톱…완성차 '반도체 수급' 초비상 (아시아경제)

전 세계 네온가스의 70%, 크립톤의 40%를 공급하는 주요 희귀가스 생산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희귀가스 정제업체 크라이오인의 정제공장 생산이 전면 중단돼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4h7Sly

현대차 · 기아 '전기차 선진국' 북유럽도 휩쓴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가 노르웨이에서 지난달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 기아 니로EV는 스웨덴에서 2개월 연속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함. 유럽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https://bit.ly/3tsg9lq

Volkswagen Chooses Wolfsburg For $2.2 Billion EV Plant (InsideEvs)

폭스바겐이 독일 볼푸스부르크에 22억달러 규모 공장 건설을 확정함. 기존 시설의 재정비보다 공장 신설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연간 25만대 Capa의 신공장 건설을 결정했으며, '23년 착공하여 '26년 출시 예정인 트리니티 생산을 담당할 예정.
https://bit.ly/3Clx8u4

China's NEV sales could significantly exceed expectations this year, MIIT minister says (CNEVPost)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22년 중국 NEV판매가 예상 목표(500만대)를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CAAM은 '22년 중국 NEV판매를 500만대(yoy+42%), 시장점유율은 1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https://bit.ly/3tzuPiT

현대차, 러 공장 9일 재개… 수급 차질에 감산 장기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 기아는 오는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평소의 50% 수준으로 감산할 것으로 전해짐. 또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부품수급이 악화된다면 추가 공장 중단 가능성 역시 존재.
https://bit.ly/35ALUB5

소니와 혼다,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 합의 (Global Auto News)

소니 그룹과 혼다가 합작회사를 설립해 배터리 전기차를 공동 개발 · 판매한다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동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연계하여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힘. '25년 첫 모델 판매 후 타사 파트너십 참여를 유도할 계획.
https://bit.ly/3hJFH8m

Lucid grapples with early 'production hell' (Automotive News)

루시드모터스가 반도체 부족과는 별개의 공급망 및 제조 문제에 직면, 이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루시드는 약 3,000개의 부품을 글로벌 250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 일부 비핵심 부품으로 인한 차질 중.
https://bit.ly/350mC25

How much could battery recycling actually aid cobalt, lithium supply shortages? (Mining.com)

IDTechEx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코발트 수요의 8% 미만, 리튬 수요의 6% 미만이 재활용 리튬 이온 배터리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리튬 재활용이 모든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것.
https://bit.ly/3sJN0D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